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7 주차 (롬 15:15~15:21)

(2018년 5월 20일 - 2018년 5월 26일)

(제5권 37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5 월 2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5:1)

¹ Ὁφείλομεν δὲ ἡμεῖς οἱ δυνατόι τὰ ἀσθενήματα τῶν ἀδυνάτων βαστάζειν
(능력있는 우리는 능력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짊어져야 한다)
καὶ μὴ ἑαυτοῖς ἀρέσκειν.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완전히 깨끗해지고 싶은 갈망이 커질수록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비례적으로 커진다. 결벽증은 청결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다. 그것은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신과 의사는 부엌에 설거지거리를 두고도 가족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설거지를 꼭 마쳐야 한다는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더 간강하다고 말한다. 일을 깔끔하게 마쳐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늘 야근하는 사람들,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닦고 또 닦는 주부들, 손을 씻고 또 씻는 것처럼 죄를 씻고 또 씻기 위해 종교적 강박에 빠지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을 떨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이상준 저 『두려움 너머의 삶』 (두란노, 2016)에서 인용).

모든 두려움이 믿음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결핍은 두려움을 수반한다. 인간들은 두려움이 찾아 올 때 그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다.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종교적 행위의 근저에는 두려움을 없애려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에 매달리게 하고 그 행위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든다. 물론 행위의 평가 기준도 자신이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특정 말씀을 추려내는 것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또한 그 해석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만큼을 행위로라도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일종의 유전병이다. 유전병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다. 그가 벗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벗음’을 더 이상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 수치로 느낀다는 말이다. 그에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벗고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수치로 느낀 적이 없었다. 오직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난 것이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가 벌거벗었다고 단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인간 스스로 초래한 것이지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아담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 무언가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겼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가 수반된다. 인간은 자신이 느낀 수치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한다. 스스로의 행위로 가림으로써 자기 만족과 안정을 구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하나님께는 이 같은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모든 수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리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란 스스로의 행위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죄인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에 자신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실제로 성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 출장을 가서도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놓인다. 알아 두든 못 알아 두든 상관없다. 주일에 예

배를 거른다든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기본이다. 하지만 매주일 같은 시간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감은 은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강박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은 모든 행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물론 이 말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리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이지 세상에서 방종하며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숙이란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를 사용하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하고 배려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에 사로 잡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들 앞에서 해방된 자기 모습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매우 융통성있게 사용했다. 그가 얼마나 타인의 삶이나 생각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했는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고린도 전서 9 장 19 절~23 절을 읽어보자.

“¹⁹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²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²¹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²²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²³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19-23).

바울은 진정으로 자유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행동했다. 그에게는 인간들이 지닌 가치관보다 우선하는 개념이 있었다.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복음을 위해 스스로를 포기할 때 그 힘이 발휘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풀어내 주신 것이 복음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란 복음 안에서 행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해 복음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유를 기꺼이 보류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도 없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음식도 반드시 가려 먹어야 안 심한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 눈에는 그런 그들이 여간 딱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자는 아직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유자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엄청난 양보를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이 정도 일도 못해서야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신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삶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2~3)

- ² ἕκαστος ἡμῶν τῷ πλησίον ἀρεσκέτω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게 기쁨을 주자)
εἰς τὸ ἀγαθὸν πρὸς οἰκοδομίην· (그들을 세워 선을 이루도록)
- ³ καὶ γὰρ ὁ Χριστὸς οὐχ ἑαυτῷ ἤρρεσεν,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ἀλλὰ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반대로 기록된 바와 같이)
οἱ ὀνειδισμοὶ τῶν ὀνειδίζοντων σε ἐπέπεσαν ἐπ’ ἐμέ. (당신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 ⁴ ὅσα γὰρ προεγράφη,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εἰς τὴν ἡμετέραν διδασκαλίαν ἐγράφη,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ἵνα διὰ τῆς ὑπομονῆς (인내를 통하여)
καὶ διὰ τῆς παρακλήσεως τῶν γραφῶν (성경의 안위를 통하여)
τὴν ἐλπίδα ἔχομεν. (우리로 소망을 지니게 함이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무조건 타인을 위하는 것이 성숙한 삶일까? 타인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 삶일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의 선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주자.”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이다. 이 권면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완전한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적 희생은 하나님이기엔 가능한 것이지 어떤 인간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성경이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했다고 자기에게 그럴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행한다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을 해칠 뿐이다. 실제로 그러한 체험을 한 피터 스카지로 목사는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대다수 크리스천 리더들처럼 나 역시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문제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비참한 기분을 느꼈고 그 사실을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내면적인 세계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러한 차이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던 말, 바로 ‘외식’이다. 외식을 곧이 곧대로 풀이하면 ‘연기’쯤 될 것이다. 특별히 두려운 것은 교회에서 이 ‘연기’를 지도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결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사이의 분열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되었다.” (피터 스카지로, 워렌 버드 저 (최종훈 역)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두란노, 2106)에서 인용).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반드시 처절한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간이 성숙되어야 한다.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도 뒤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일이라도 정작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없으면 이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인간의 뇌 구조는 참으로 신묘막측해서 마치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저장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다. 아무리 기쁨으로 타인을 돕고, 또 도울 당시에는 사심없이 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하기라도 하면 기억 저장소의 빔장이 빛의 속도로 열리면서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사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에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을 따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늘 자신이 손해를 보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경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고 늘 제자리인 사람들을 대하고 있노라면 절망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실 교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나 정서적인 수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 어떨 때에는 자신의 에너지와 기쁨을 고갈시키기도 한다. 제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배려한다 해도 늘 받는 것에만 익숙한 분들을 만날 때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골똥 같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도는 성경 읽기, 기도, 예배 참석 등 소위 종교 활동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겪는 모든 삶을 통해 성숙된다.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 이기주의자, 즉 자신의 감정과 유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불편한 감정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간은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그 원인을 찾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조금씩 인격적으로 성숙해간다. 따라서 인격적인 성숙은 나이나 신앙 연수, 성경 지식과는 전혀 무관하다. 인격적인 성숙은 오직 믿음에 비례한다. 그런 이유로 내가 어느 정도로 마음이 불편한지는 자신의 믿음과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소중한 것을 양보해야 한다는 걸 아는 성도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한다. 문제는 그 중 많은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 깊은 데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와 영적으로 지쳐간다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영적으로 지치기 쉬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선을 행함에는 반드시 낙심이 따르게 마련이다. 바울의 권면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고 타인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 놓는 삶을 반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다. 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마냥 상대방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으로 피곤하고 낙심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고 수혜를 받는 상대방의 영적 성숙도 동반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말 변하기 힘든 형제나 자매를 돌보는 것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훈련해 가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도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을 새 한 사람으로 완성해 내신다.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섬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섬김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7~12)

- ⁷ Διὸ προσλαμβάνεσθε ἀλλήλους, (그러므로 서로 받아들이라)
καθὼς καὶ ὁ Χριστὸς προσελάβετο ὑμᾶς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εἰς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⁸ λέγω γὰρ (왜냐하면 나는 말한다)
Χριστὸν διάκονον γεγενῆσθαι περιτομῆς (그리스도가 할례자들을 섬기는 분이 되었음을)
ὕπερ ἀληθείας θεοῦ,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εἰς τὸ βεβαιῶσαι τὰς ἐπαγγελίας τῶν πατέρων,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인하고)
- ⁹ τὰ δὲ ἔθνη ὑπερ᾽ ἐλέους δοξάζουσι τὸν θεόν, (이방인이 공회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διὰ τοῦτο (그러므로)
ἐξομολογήσομαί σοι ἐν ἔθνεσιν (내가 이방 중에서 당신을 고백하고)
καὶ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ψαλῶ. (당신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 ¹⁰ καὶ πάλιν λέγει·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εὐφράνθητε, ἔθνη, μετὰ τοῦ λαοῦ αὐτοῦ. (즐거움이 될지어다! 이방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 ¹¹ καὶ πάλιν· (그리고 다시)
αἰνεῖτε, πάντα τὰ ἔθνη, τὸν κύριον (찬양하라! 모든 이방들아, 그 주를)
καὶ ἐπαινεσάπωσαν αὐτὸν πάντες οἱ λαοί. (그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다)
- ¹² καὶ πάλιν Ἡσαΐας λέγει· (그리고 다시 이사야가 말하되)
ἔσται ἡ ρίζα τοῦ Ἰησοῦ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καὶ ὁ ἀμιστάμενος ἄρχεν ἔθνων, (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자)
ἐπ' αὐτῷ ἔθνη ἐλποῦσιν. (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마태복음 18 장에는 교회 내에서 성도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마 18:21).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 (마 18:22). 이 말씀은 신술적으로 490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는 뜻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다. 베드로의 질문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말함으로써 형제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용서하다’는 헬리어 ‘아피에미’(ἀφιήμι)는 단순히 가해자를 피해자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피에미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풍습으로 인한 생활 습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죄와는 상관없이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한센병 환자들이 그랬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그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

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더는 한센병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격리할 수는 없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진정한 의미다.

교회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통한 구원의 절대성은 그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치지 않고 그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다. 물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행해오던 습관을 버리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미덕이다. 교회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참으로 묘한 곳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찬양에 관해 말하기 앞서 성도 개개인이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함으로써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의 전부다 아니다. 찬양은 노래이기 이전에 성도들의 삶이다. 성도들이 삶에서 체험한 것들을 목소리와 멜로디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 따라서 삶에서 우리나라지 않은 찬양은 공허하고 무미 건조한 종교 의식일 뿐이다. 찬양의 콘텐츠는 삶이어야 한다.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용서로 보았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바울의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⁴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¹⁵ 이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¹⁶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¹⁷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14-17).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는 못했다. 소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장차 올 것은 ‘아직’에 속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되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산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삶이라 말한다. 즉, 타인에게 선을 베풀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 사랑이라는 추상 명사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 사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교회 내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의 삶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부터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성도라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다. 거듭 말하지만 찬양은 성도의 삶의 고백이다.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할수록 찬양의 울림은 커지게 된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13)

¹³ Ὁ δὲ θεὸς τῆς ἐλπίδος πληρώσει ὑμᾶς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πάσης χαρᾶς καὶ εἰρήνης ἐν τῷ πιστεύειν, (그에게 믿음을 둬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εἰς τὸ περισσεύειν ὑμᾶς ἐν τῇ ἐλπίδι (그 결과 너희가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ἐν δυνάμει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성령의 능력으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 15 장 13 절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그 이후부터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당부다. 로마서 1 장 1 절~17 절이 첫 인삿말이라면 로마서 15 장 14~16 장 27 절은 마지막 마무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로마서의 몸통 부분은 1 장 18 절부터 15 장 13 절까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1 장 18 절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롬 1:18).

로마서 1 장 18 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시작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사는 삶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의요 불경건이다. 그렇기에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였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피할 곳이 없는 인간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유일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정대로 인간에게 퍼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 상에서 성취되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모든 대가가 치뤄졌다. 그것이 구원이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²³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²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²⁵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²⁶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롬 3:23-26).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지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의 판단 기준이 된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 뿐만 아

나라 이 세상 권세잡은 자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감으로써 삶의 주관자도 바뀌게 된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불편하고 어색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벗어버리기도 쉽지 않다.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온전하게 변화를 받으라는 성령의 요구와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육신이 서로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있다.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좇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의 욕망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²⁹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³⁰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 10:29-30).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모두가 제자다. 예외는 없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고 바울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 교회에 나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절실히 원한다.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더 추구한다.

왜 그럴까? 사실 이것은 소망에 관한 문제다. 많은 성도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소망이 사라진지 오래다. 구원 받기 전이나 후에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한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히 13:14).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것을 바라는 존재다. 그것을 소망이라 한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소망으로 마무리한다. 영원한 도성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현재의 삶에 연연하기보다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14~16)

- ¹⁴ Πέπεισμαι δέ, ἀδελφοί μου, καὶ αὐτὸς ἐγὼ περὶ ὑμῶν (내가 확신한다, 나의 형제들아, 나 스스로 너희들에 대해서)
ὅτι καὶ αὐτοὶ μεστοὶ ἐστε ἀγαθωσύνης,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선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πεπληρωμένοι πάσης [τῆς] γνώσεως, (모든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온)
δυνάμενοι καὶ ἀλλήλους νοθετεῖν. (서로에게 능히 권면할 수 있는)
- ¹⁵ τολμηρότερον δὲ ἔγραψα ὑμῖν ἀπὸ μέρους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게 대략 [편지를] 썼다)
ὡς ἐπαναμνησκῶν ὑμᾶς (너희를 다시 생각함으로)
διὰ τὴν χάριν τὴν δοθεῖσάν μοι ὑπὸ τοῦ θεοῦ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하여)
- ¹⁶ εἰς τὸ εἶναι με λειτουργὸν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εἰς τὰ ἔθνη, (나로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ἱερουργεῖντα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ἵνα γένηται ἡ προσφορὰ τῶν ἐθνῶν εὐπρόσδεκτος, (이방인의 제물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도록)
ἡγιασμένη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클라디우스 황제가 선포한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써내려 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초대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합류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이게 되었다. 물론 그 중 대다수는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관습대로 따르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행사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다.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떠난 로마 교회를 지키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본격적인 갈등은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AD 54년)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물론 그 중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찾은 로마 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교회가 아니었다.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전통은 사라지고 이방 문화가 판을 쳤다. 엄격하게 지키던 안식일은 유명무실해졌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었던 음식들은 이방인들 취향에 맞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잃은 로마 교회를 과거로 되돌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에 바울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논증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양쪽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유대인들의 태도에도 일리가 있었고, 안식일에 대한 아무런 개념조차 없는 이방인들이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일하거나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이해해 주어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율법에 정한 절기나 음식 문제에 관해 매우 관대하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위 개념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용납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다.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¹²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¹³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¹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¹⁵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¹⁶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¹⁷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2-17).

성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물론 타인의 생각이나 주장에 끌려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다. 성도들 개개인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건전한 관계란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대로 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존중받아야 하듯 타인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성숙한 인간 관계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것을 설명해왔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확신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되었다. 누구도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럴 때에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삶을 받아들이는 상호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날은 어떤가? 요즘 교회 내에는 몇 가지 금기 사항이 있다. 음주와 흡연이 대표적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느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잣대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에서는 유독 이 문제를 엄격히 다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 이는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흡연 문제와 연관시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흡연하는 성도보다 정작 그 흡연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흡연자를 판단하는 다른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가? 왜 유독 그 문제만 교회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성인 군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죄인들이 와서 개과천선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나누며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다. 또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은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그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감히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 불리게 되었다. 우리가 잘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덕분이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타인을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겠는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진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바랐고 그것을 확신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과연 선함으로 가득해 성도간에 서로 능히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용납하고 있나요?

바울의 제사장 직분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14~16)

- ¹⁴ Πέπεισμαι δέ, ἀδελφοί μου, καὶ αὐτὸς ἐγὼ περὶ ὑμῶν (내가 확신한다, 나의 형제들아, 나 스스로 너희들에 대해서)
ὅτι καὶ αὐτοὶ μεστοὶ ἐστε ἀγαθωσύνης,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선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πεπληρωμένοι πάσης [τῆς] γνώσεως, (모든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온)
δυνάμενοι καὶ ἀλλήλους νοθετεῖν. (서로에게 능히 권면할 수 있는)
- ¹⁵ τολμηρότερον δὲ ἔγραψα ὑμῖν ἀπὸ μέρους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게 대략 [편지를] 썼다)
ὡς ἐπαναμνησκων ὑμᾶς (너희를 다시 생각함으로)
διὰ τὴν χάριν τὴν δοθεῖσάν μοι ὑπὸ τοῦ θεοῦ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하여)
- ¹⁶ εἰς τὸ εἶναί με λειτουργὸν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εἰς τὰ ἔθνη, (나로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셔서)
ἱερουργοῦντα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ἵνα γένηται ἡ προσφορὰ τῶν ἐθνῶν εὐπρόσδεκτος, (이방인의 제물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도록)
ἡγιασμένη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구약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직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인간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직분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인 인간 편에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제사장 직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김없이 예언을 떠올린다. 예언이란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일종의 점쟁이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그 결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일을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풀어 설명한 것은 그 자체로 선지자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선지자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 설명하고 권면하는 직분이다.

제사장은 그 역할이 선지자와는 다르다. 인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수든 고의든 죄를 범해서 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불의와 불경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게 된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줘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을 테니 말이다. 이처럼 제사장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는 중요한 직분이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율법이 명한 대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화목 제물로 드리면 된다. 물론 그 일은 제사장이 도맡아 했다. 하지만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일종의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모형조차 없었다.

성전도 제사법도 없었고 당연히 제사장도 없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려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죄 사람을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다. 이에 관한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¹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²¹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²²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19-22).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이 모형으로 섬기던 성전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야 한다. 예외는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자든 우매한 자든, 자유자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설득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 소개한다.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이니 사도의 직분은 곧 제사장 직분과 그 역할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의 자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¹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¹⁹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²⁰ 이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²¹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18-21).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한다. 화목케 하는 직분은 단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한다. 베드로도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다.(벧전 2:9참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죄인들에게 알리는 직분이다. 따라서 복음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제사장이라고 소개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자랑거리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5:17~21)

- ¹⁷ ἔχω οὖν [τὴν] καύχησιν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ὰ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을 [지니고 있다])
- ¹⁸ οὐ γὰρ τολμήσω τι λαλεῖν (나는 어떤 것이든 무모하게 말하지 않는다)
ὧν οὐ κατειργάσατο Χριστὸς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δι' ἐμοῦ (나를 통하여)
εἰς ὑπακοὴν ἔθνων,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
λόγῳ καὶ ἔργῳ, (말과 행동으로)
- ¹⁹ ἐν δυνάμει σημείων καὶ τεράτων,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ἐν δυνάμει πνεύματος [θεοῦ].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ὥστε με ἀπὸ Ἱερουσαλὴμ καὶ κύκλῳ μέχρι τοῦ Ἰλλυρικοῦ πεπληρωκένο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다)
- ²⁰ οὕτως δὲ φιλοτιμούμενον εὐαγγελίζεσθαι (비록 내가 복음 전하는 강한 야망을 가졌지만)
οὐχ ὅπου ὠνομάσθη Χριστὸς,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곳에서는 하지 않았다)
ἵνα μὴ ἐπ' ἀλλότριον θεμέλιον οἰκοδομῶ,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²¹ ἀλλὰ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그러나 기록한 바와 같이)
οἷς οὐκ ἀνηγγέλῃ περὶ αὐτοῦ ὄνοντα, (그에 대하여 받지 못한 이들이 보게 될 것이며)
καὶ οἱ οὐκ ἀκηκόασιν συνήσουσιν. (듣지 못한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첫 인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노력했는지 따위를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들만 자랑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은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로 금기시된 부끄러운 존재였다. 그분은 출신부터가 그랬다. 근사한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다. 가난하고 이름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 그마저도 아버지가 분명치 않아 사람들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가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내로라 하는 집안 출신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랍비 학교 출신이었다면 그의 말은 더욱 권위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 동네에서 자랐고 평범한 목수 일을 했다. 오죽했으면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빌립에게 핀잔을 주었겠는가?

예수님의 출신은 뭐 그렇다고 치자.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을 놓고도 그를 주로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형 방법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와 함께 한다는 것, 심지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몰골로 죽어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

정하고 그를 주로 선포한다는 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예수님께) 미친 자라고 고백한 바 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나”(고후 5:13).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초대 교회 당시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십자가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추상화 돼 버렸다. 십자가가 추상적이라면 복음도 추상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처형 당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 누가 실재가 아닌 추상적인 것에 목숨을 걸겠는가?

바울이 살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일이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위험이 뒤따랐다. 그것은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한 바 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²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요 16:1-2).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다. 그 이유는 예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진리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절대 진리가 모든 것을 상대화 하는 세계관과 충돌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절대 진리임을 자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절대 진리임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믿음은 인간 개개인의 신념 이상의 문체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담대함이 곧 믿음이다. 바울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나 신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을 채웠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⁷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⁹ 꺾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¹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7-10).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 입지 않으면 단 한 순간도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살이에 지쳐 힘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